

19일 광주예총회장 선거... 어떤 사람 뽑아야 하나

“문화수도 이끌 CEO형으로”

10개 협회 5천여명의 회원을 아우르고 있는 광주예총은 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예술가 단체다.

하지만 예총은 최근 몇년 사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민예총에 비해 침체기에 빠져 있는 게 사실.

오는 19일 신입회장 선거를 앞두고 “광주예총이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예총은 광주 지역 예술인과 지역문화 발전의 구심체 역할을 하기 보다는 몇몇 문화계 인사들이 모여 있는 ‘끼리끼리 집단’ 느낌이 강해 회원들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

회원들은 신입 회장이 갖출 덕목 중 하나로 예술 경영 마인드를 꼽았다. 예전처럼 회장 자리가 단순히 ‘갑부’ 쓰고 개인의 명예욕만을 충족시키는 자리는 아니라는 말이다. 다양한 기획력을 바탕으로 행사를 만들고 직접 발로 뛰면서 사업화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다. 특히 각 단체들에 주어지는 보조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넉넉한 재정 확보는 현재 발등의 불이다.

또 현재 시가 지원하는 자금으로 근근히 사업을 진행하는 탓에 시에 끌리다니며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도 협회의 위상을 스스로 깎아내리고 있다. 때문에 국비 확보 등을 위해 직접 발로 뛰는 ‘CEO형 회장’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연극인 A씨는 “물론 경영 마인드라는 게 단순히 스폰서를 많이 끌어오는 등 경제적 지원만을 뜻하는 건 아니다. 정확한 기획력을 바탕으로



신입회장 선거를 앞두고 광주예총의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사진은 광주예술문화상 시상식 모습.

‘관’을 벌이고 꼭 필요한 곳에 ‘돈’을 쓰는 게 바로 예술 경영 마인드다. 돈을 많이 가져와도 ‘제대로’ 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회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도 신입 회장의 숙제다. 민예총에 비해 정부의 중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회원들의 박탈감과 불만은 상당히 높다. 몇몇

인사들이 불만 토로가 아닌, 제대로 된 정책과 비전 제시로 ‘당당히’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각 협회에 대한 형평성 있는 지원도 회장이 갖춰야 할 자질 중 하나로 꼽혔다. 협회에 10개의 산하 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인연 등으로 특정 분야에만 지원이 쏟아지는 건 회원들의 화합을 해친

다는 지적이다. 국악인 B씨는 “회장이 어느 협회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 그 분야만 집중 지원하다 보면 나머지 협회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제대로 된 협회 운영을 위해서는 회장 개인의 사심은 버리고 좀 더 큰 그림을 그리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각 협회에 대한 형평성 있는 지원도 회장이 갖춰야 할 자질 중 하나로 꼽혔다. 협회에 10개의 산하 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인연 등으로 특정 분야에만 지원이 쏟아지는 건 회원들의 화합을 해친

다는 지적이다. 국악인 B씨는 “회장이 어느 협회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 그 분야만 집중 지원하다 보면 나머지 협회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제대로 된 협회 운영을 위해서는 회장 개인의 사심은 버리고 좀 더 큰 그림을 그리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예총회장 김태욱·박운모·최규철씨 임후보

8일 등록을 마감한 제 7대 광주예총 선거에는 김태욱(58·광주예총 감사), 박운모(53·광주공예미술극장장), 최규철(53·전남대 미대 교수) 등 3명이 출마표를 던졌다.

예총회장선거는 10개 협회에서 선정한 각 5명의 대의원과 회장단 5명 등 모두 55명이 투표권을 갖고 있으며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회장을 선출한다. 1차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

는 2차 투표를 실시, 다득표자를 회장으로 뽑는다. 19일 문예회관 내 르네상스에서 개최되는 정기총회에서 후보자 정책토론회 및 소견 발표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동갤러리 오픈전

한국 화단 거장들 한자리에

박창열 대표 소장품 300여점 중 80점 공개

대동갤러리(대표 박창열·광주 컨트리클럽 회장)가 고 허백련, 임작순, 이응노, 최상중, 이상범, 김기창 화백 등 한국 화단의 거장 30명의 작품 80여점을 선보인다.

이 전시에는 천경자 선생의 ‘네덜란드 소년’, ‘꽃과 여인’ 등과 한국적 인상주의 화풍을 개척한 오지호 화백의 ‘항구’, ‘꽃동산’ 등 작품이 전시된다.

‘꽃과 여인’의 화가’로 알려진 임작순 선생의 ‘소녀’, ‘꽃과 여인’ 등과 함께 호남 추상미술 1세대인 양수아씨의 ‘강강수월래’도 공개된다.

한국화가 김은호, 허백련, 김기창, 이상범씨 등 대가들의 작품과 백범 김구, 박정희 전대통령 친필, 신익희, 조만식 선생의 서예 작품도 관객들을 만난다.

이들 작품은 최근 가톨릭센터 뒤편에 있는 창갤러리를 인수해 대동 갤러리로 새단장한 박 대표가 30여년 동안 모은 소장품 300점 가운데 일부다.

박 대표는 창갤러리가 경영난에 봉착하자 지역 미술인과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해 창갤러리를 인수, 경영에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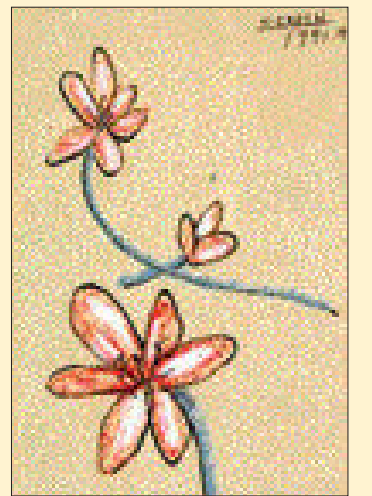
아산 조방원 선생에게 그림을 배울 정도로 미술에 남다른 열정을 갖고 있는 박 대표는 개관을 기념해 ‘제1회 대동미술상’을 제정, 오경규(한국화), 최요안, 조진호(이상 서양화)씨에게 각각 창작 지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대동갤러리 박창열 대표가 갤러리 개관기념 소장품전에서 작품을 설명하고 있다. /위키키자 jnwi@kwangju.co.kr



천경자 작 ‘꽃을 건 여인’



이중섭 작 ‘부인에게 보내는 꽃’

그는 또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해 미술품 경매시장을 개설하는 한편, 지역 작가들을 후원하는 기획 초대전을 적극 유치할 방침이다.

박창열 대표는 “대동갤러리가

지역 미술인들에게 작품 발표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미술계의 발전에 작은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동물 친구와 함께 행복한 추억

‘동물아카데미’ 3월4일까지 김대중 컨벤션센터

‘동물 친구들과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요.’ 전시와 공연, 체험학습이 함께 어우러진 ‘2007 동물아카데미’가 3월 4일까지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지난 3년간 서울과 부산에서 150만명의 관객을 동원한 이번 행사는 99만원의 제작비가 투입된 대규모 이벤트다.

가장 눈길을 끄는 코너는 하루 3차례(주말 4차례) 동물들이 직접 주인공으로 나서는 코미디 동물극 ‘해피, 메리, 쵸!’. 역대 몸값을 자랑하는 오랑우탄이 ‘웃찾사’의 만사마를 패러디한 연기를 펼치며 70여마리의 동물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콩쥐팥쥐’가 공연된다. (공연시간 확인)

아이들이 동물을 직접 만지며 느끼보는 체험학습 ‘나도 이젠 동물박사’에서는 뱀, 라이언 토끼, 황소개구리 등 다양한 동물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그밖에 ‘허구 동물 대탐험전’에서는 TV와 책을 통해서만 볼 수 있었던 300여종 1천여 마리의 신비한 동물들을 직접 만날 수 있다. 관람료 성인 1만2천원, 어린이 1만원. 문의 062-611-3700. /김미연기자 mekim@kwangju.co.kr

미협 이사장 노재순씨

수석 부이사장에 서예가 이돈홍씨

한국미술협회(미협)는 7일 전국 지역별 투표소에서 총회를 열고 제21대 이사장으로 노재순(57)씨, 수석 부이사장으로 서예가 학정 이돈홍(60·학정 서예연구원장)씨를 선출했다. 총선 청야 출신인 노씨는 홍익대 미술교육과를 나와 18차례 개인전과 소파아 트리아날레, 국제아세아화전, 오늘의 현장 작가전 등 단체전에 참가했다. 하철경 이사장이 이끈

Portrait of 노재순씨 and 이돈홍씨 with their names and titles. 노재순씨는 한국미술협회 이사장, 이돈홍씨는 수석 부이사장. 이돈홍씨는 대한민국의 미술대전, 전라남도 미술대전, 무등미술대전 심사위원 등을 역임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Real estate advertisements for various agencies including 대인동심일부동산, LC타워(주), 일가공인중개사, 믿음공인중개사, 금강공인중개사, 투우드공인중개사, 정우부동산, and 인애공인중개사. Each ad lists contact information and property details.